

떡·초콜릿·쿠키로...강진딸기의 변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상품개발·컨설팅 연구용역 발표회 10개 제품 개발...기술 이전 교육

강진 딸기가 누룽지 초콜릿, 쿠키, 찹쌀떡, 모나카 등으로 탈바꿈했다.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여름지기 주주, 관계자들과 '강진 딸기 활용 상품개발·컨설팅'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강진군 종합운동장 안 강진군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강진 딸기 음식들이 선보여졌다.

연구를 맡은 손길선 박사(반디지역경제연구소)는 상품 개발 내용과 전략 등을 설명했다. 그는 조리 완제품과 반제품, 체험 상품 등 10종을 내놓았다. 이후 개발된 상품 시식과 평가 등이 진행됐다.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강진 딸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반디지역경제연구소에 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업체가 개발한 완제품에는 스노우볼, 딸기잼 쿠키, 딸기 샤프레 등이 있다. 요리에 쓰이는 반제품에는 동결건조 분말, 잼, 다이스 등이 개발됐다. 요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누룽지 바크 초콜릿, 아이싱 쿠키, 딸기크림 모찌(찹쌀떡), 모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연 '강진 딸기 활용 상품개발·컨설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진 딸기를 활용한 요리를 맛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카 플로랑탱 등도 선보여졌다.

개발된 10종의 제품은 이달 열리는 기술 이전 교육에서 활용된다.

강진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구축된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 체험 교육에도 이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조직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지역자

원의 상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영철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이번에 개발된 제품으로 강진 딸기가 선물 꾸러미, 체험 상품 등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축산 악취 끝...담양군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

97억 들여 내년 착공 2027년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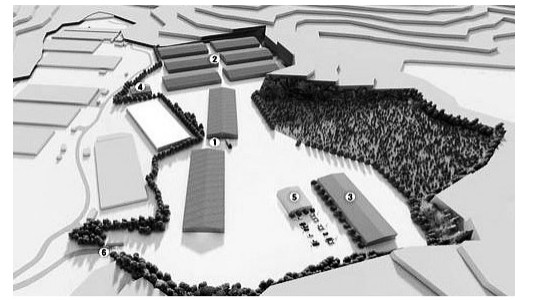
담양군이 악취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시스템과 ICT 융복합 시설을 집적한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마을과 가까운 기존 축사를 이전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축사를 깨끗하고 질병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단지로 바꿔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양군은 그동안 전남도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유기적인 협업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공약인 축산단지는 재평가에 따른 보완 등으로 6.5ha에서 5.5ha로 규모를 조정해 웅면 두장리 부지에 농가 8곳, 한우 1170여 마리 규모



담양 스마트 축산단지 조감도.

로 조성될 예정이다.

축산시설 기반 조성과 교육, 관제센터 조성에 48억원을 지원하고, 축사 시설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장비 도입 등에 9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축사에도 ICT 융복합 시설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육 환경과 더불어 악취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친화적인 축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백양사 국립공원 주차장 장성군 임대 무료 개방

장성군이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6월부터 백양사와 국립공원 일대 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에 이어 지난해 5월 전국 주요 사찰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주차료는 현행대로 유지돼 승용차 기준 대당 5000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는 국립공원 일대 방문객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문제 해결에 나선 장성군은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남창지구 주차장 3곳을 임대해 6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방문객 주차비 부담 해소를 백양사 일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국립공원 백암·남창지구 내 모든 주차장 무료화로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새로운 '장성 관광시대'를 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지오학교 학생들이 추모음악회를 위해 악기 연습을 하고 있다. <지오학교 제공>

화순 청소년들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로

지오학교 학생·멘토교사 등 10명 5박6일 일정 사이판·티니안 방문

화순 청소년들,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로 화순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태평양 섬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섰다.

지오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중고등 재학생과 멘토교사 등 10명은 오는 10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사이판과 티니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에 선정, 역사 바로알기와 국외 교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이판과 티니안은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은 태평양 전쟁 중 많은 한국인이 비행장건설 등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린 곳이다.

티니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뜨렸던 두 개의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의 출발지로도 알려져 있다. 이 곳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정을 꾸린 한국인들이 적지 않아 전체 인구의 45%가 한국계라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은 방문을 앞두고 자료조사는 물론 여행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모음악회를 위해 색소폰 등 악기 연습에도 열심이다.

서광렬 지오학교 교장은 "여행은 걸어나다며 하는 독서'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김성(앞줄 오른쪽 두번째) 장흥군수와 김형식 안중군의사사무회 이사장 등이 '안중군 의사 선양사업'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안중군 의사 선양사업 활성화 나선다

안중군의사 승모회와 업무협약

안중군 의사 추모 사업이 있는 장흥군이 안중군 선양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사단법인 안중군의사승모회와 지난 31일 서울 안중군의사기념관에서 안중군 의사 선양사업 공동 추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김형식 안중군의사사무회 이사장, 유영철 안중군의사기념관 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중군의사기념관 중앙홀 안중군 의사 대령 좌상 앞에서 참배한 뒤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중군 의사 선양을 위한 추모, 학술, 교육문화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흥 안중군의사추모역사관과 안중군기념관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선양과 역사성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장흥군은 올해 3월부터 장흥

면 해동사 인근에 안중군의사추모역사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추모역사관은 안중군 의사의 의병활동과 하얼빈 의거 등을 소개하고, 기념 동상, 메모리얼 파크 등을 갖췄다.

'안중군, 빛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의 영상실에서는 독립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한편 안중군의사승모회는 1963년 12월 16일 독립운동가 이강, 김홍일, 안춘생 등 15명이 뜻을 같이해 설립했다. 안중군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추모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안중군 의사의 육종 유필과 관련 사진·자료 수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중군 의사 추모, 역사, 문화 교류사업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안중군 의사의 나라 사랑과 평화를 위한 정신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
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